

20세기 韓日 간 지식정보의 생산과 흐름 분석*

- 인문·사회과학분야의 단행본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Research Products of Each Other Between Korea and Japan

최 정 태(Jung-Tai Choe)**

이 제 환(Jae-Whoan Lee)**

노 지 현(Jee-Hyun Rho)***

목 차

- | | |
|------------------------|-----------------------|
| 1. 서론 | 3. 1 한국이 생산한 지식정보의 현황 |
| 1. 1 연구배경과 목적 | 3. 2 일본이 생산한 지식정보의 현황 |
| 1. 2 연구범위와 방법 | 4. 韓日 간 지식정보의 특성 비교 |
| 2. 韓日 간 서로에 대한 연구동향 | 4. 1 지식정보의 시기별 비교 분석 |
| 2. 1 한국에서의 일본연구 동향 | 4. 2 지식정보의 주제별 비교 분석 |
| 2. 2 일본에서의 한국연구 동향 | 5. 결론: 지식정보 관리의 필요성 |
| 3. 韓日 양국이 생산한 지식정보의 현황 | |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지난 100년 동안(1901년~2000년) 韓日 양국이 서로에 대해 생산해온 학술적 성격의 지식정보자원을 선별적으로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서지학적 관점'에서 양국의 관심분야와 연구성과를 분석해 보는데 있다. 지금까지 주로 연구분야별로 또는 연구주체별로 단선적이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韓日 양국의 서로에 대한 연구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상대국에 대한 연구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가능해 보고, 나아가, 韓日 양국이 생산한 지식정보의 유통체계를 진단해 봄으로써 향후 어떠한 관리방안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하였다.

ABSTRACTS

This study intends to discuss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resources which Korea and Japan has produced about each other for the period of 1901~2000. To this end, we collected comprehensively the monographs produced by each country, and built a database named as "Korea-Japan Knowledge Information System." Using this database, we analyzed the present state and characteristics of the monographs with a special emphasis on the publication period and subject. Also identified w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duction of monographs and the Korea-Japan relations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Finally suggested was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information system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of the produced monographs.

키워드: 한국, 일본, 한일관계, 지식정보, 단행본, 연구동향

* 이 연구는 1998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됨(KRF-98-005-C00479)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jtchoe@pusan.ac.kr)(jwleeh@pusan.ac.kr)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rhojee@hanmail.net)

논문접수일자 2002년 5월 15일

게재확정일자 2002년 5월 25일

1. 서론

1. 1 연구배경과 목적

‘過去事 問題’를 둘러싼 일본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한 분노와 규탄이 또다시 전국에 들끓고 있다. 이러한 한국인들의 분노와 규탄은 戰後 한일관계가 공식적으로 재개된 이후 반복적인 행사가 되고 있는 느낌이다. 한국인의 기억에는 과거사를 둘러싸고 반복되어온 일본 지도층의 망언과 사죄가 생생하게 남아있다. 그러나 굴곡 많던 20세기를 뒤로하고 21세기가 시작된 현 시점에서조차 동일한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한국의 일본에 대한 이해와 대응이 여전히 초보적이며 감정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다시 말해, 한일관계에 영향을 미쳐온 과거사 문제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에 기초하여 명쾌하게 대처하기보다는 事件이 불거질 때마다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에 그침으로써 동일한 상황을 반복하는 우를 저질러오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러한 대응자세와 전략은 이제 수정되어야 한다. 격한 반일감정을 무절제하게 쏟아내기 보다는 객관적인 연구성과에 기초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한일관계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팀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이러한 대립과 갈등 그리고 영향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양국이 서로에 관해 생산해온 지식정보자원을 수집하여 그 규모와 특성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지난 100년 동안 한국과 일본이 서로에 대

해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생산해낸 지식정보자원의 규모와 특성을 조사해 보면, 韓日 양국이 서로에 대해 얼마나 폭넓고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다는 믿음에서였다. 구체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서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이해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韓日관계의 시대적 상황과 해당 시기에 생산된 지식정보와의 상관관계는 어떠한지, 그리고 생산된 지식정보는 양국의 상호인식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쳐왔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처럼, 이 연구의 목적은 지난 100년 동안 (1901년~2000년) 韓日 양국이 서로에 대해 생산해온 학술적 성격의 지식정보자원을 선별적으로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서지학적 관점’에서 양국의 관심분야와 연구성과를 분석해 보는데 있다. 지금까지 주로 연구분야별로 또는 연구주체별로 단선적이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韓日 양국의 서로에 대한 연구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상대국에 대한 연구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가늠해 보고, 나아가, 韓日 양국이 생산한 지식정보의 유통체계를 진단해 봄으로써 향후 어떠한 관리방안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하였다.

1. 2 연구범위와 방법

이 연구를 통해 수집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지식정보자료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① 韓日 양국이 상대국에 대해 연구한 자료는 '한국에서의 일본연구'와 '일본에서의 한국연구'로 국한하였다. 단, 번역서와 편역서는 제외하였다.
- ② 대상 자료는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로 제한하였다.
- ③ 대상 자료의 주제는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로 제한하였다.
- ④ 대상 자료의 형태는 '단행본'으로 제한하였다.

이처럼, 조사 대상 자료가 가지는 한계로 인해, 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특히, 단행본을 중심으로 연구의 경향과 흐름을 분석하는 것은 학술논문이나 학위논문 등을 포함한 연구물 '전체'에 대한 분석결과와 완전히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학술논문이나 학위논문을 축적·보완하여 '단행본'을 출간하게 되므로, 단행본 자체만으로도 지난 100년간의 연구 흐름과 특성을 밝혀보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한편, 이 연구의 수행을 위한 자료의 수집을 위해서는 4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① 서

지데이터베이스의 활용, ② 인쇄본 목록의 이용, ③ 한국 및 일본내 관련 연구기관에 대한 방문조사, 그리고 ④ 관련 연구자와의 면담. 먼저, 한국과 일본의 도서관과 문서관을 대상으로 한국의 일본에 관한, 일본의 한국에 관한 문헌들을 탐색하여 이들 자료를 선별적으로 수집하였다. 아울러 관련 연구소, 학회, 연구자들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하여 미공개 자료들을 보완하였다. 데이터의 수집을 위해 본 연구팀이 사용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온라인목록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도서관목록과 관련 기관의 '서지 DB'를 파악하여 자료를 탐색하였다.¹⁾ 이 과정에서 많은 자료가 여러 서지 DB에 중복 수록되어 있어, 검색결과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기존에 구축된 서지 DB가 최신 자료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어 미수록 자료를 망라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많은 자료는 인쇄본 형태로 출판된 각종 서지류를 참조하여 보완하였다.²⁾ 이에 더해, 목록을 통해 파악된 자료 중에서 주요 연구물로 판명된 자료를 이용하여 以前の 관련 자료

-
- 1) • 한국의 일본연구 자료를 탐색하기 위해 접근한 주요 서지 DB
 -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사회과학도서관, 기타 단위 대학도서관 DB
 - 국사편찬위원회, 홍익대 한국사 서지, 한일관계사학회 등에서 자체 구축한 DB
 -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일본자료센터 [국내일본관련논저] 목록
 - 일본의 한국연구 자료를 탐색하기 위해 접근한 주요 서지DB
 - 國立國會圖書館 (National Diet Library)
 - 國立情報學研究所 NII(National Institute of Informatics)
 - 文部省學術情報センター (NACSIS: National Center for Science Information Systems)
 - 東京大學 総合圖書館 (University of Tokyo Library System)
 - 東京大學 東洋文化研究所附屬 東洋學文獻センター (Research and Information Center for Asian Studies, Institute of Oriental Culture, University of Tokyo)
 - 朝鮮史研究會 [戰後日本における朝鮮史文獻目錄データベース]
 - 日本貿易振興會 アジア經濟研究所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
 - 東洋文庫 (THE TOYO BUNKO: Oriental Library)

를 역추적하는 보완 작업도 수행하였다.

다음, 서지 목록을 이용한 데이터의 수집을 보완하기 위하여, 한일 양국의 주요 관련 기관(연구소, 학회 등)에 대한 방문조사를 수행하였다.³⁾ 이를 통해, 각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 세밀히 조사하였으며, 동시에, 방문기관의 주요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자료의 현황과 실태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더불어, 이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자들을 선정하여 면담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주제 분야별로 한국에서의 일본연구 동향과 일본에서의 한국연구 동향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관련 자료의 수집에 도움을 받았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본 연구팀이 수집한 자료(단행본)는 '한국에서의 일본연구'가 약 3,500여종 그리고 '일본에서의 한국연구'가 약 7,000종이었다.⁴⁾ 이렇게 수집한 자료는 본 연구팀이 개발한 『韓日 지식정보검색시스템』을 이용해 DB로 구축하였는데, 주제별 저자별 시기별 자료검색이 가능하게 하였다. 수집하여 DB로 구축한 자료는 ①정치·외교·군사, ②경제·산업·통상, ③역사·지리, ④행정, ⑤사회, ⑥교육, ⑦법, ⑧문화예술, ⑨사상·종교·철학, ⑩어·문학, ⑪기타 등 11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주제별 특성을 분석하였다.⁵⁾ 한편, 시기별 분석을 위해서는 韓日 양국의 국가정책과 국민의 의식과 행태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한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

-
- 2) 본 연구의 범위가 1901년부터 2000년까지 100년간인데 반해, 대부분의 서지 DB들은 최대 1950년 이후의 자료들만을 제공하고 있었다. 따라서 100년간의 연구범위 중 절반 가량은 인쇄본 서지 자료를 발굴하여 이속에서 관련자료들을 탐색해 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가령, 일본에서 구축한 가장 방대한 규모의 서지 DB인 國立國會圖書館 DB조차도 1948년 이후 자료에 대한 서지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그 이전에 출판된 자료는 『國立國會圖書館所藏 朝鮮關係資料目錄』과 같은 인쇄본 형태의 목록을 입수하여 수집해야만 했다. 최종적으로, 한국의 일본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탐색한 '인쇄형 서지 목록'은 총 67종이었으며, 일본의 한국관련 자료 목록은 총 33종이었다 (연구팀이 참조한 인쇄본 형태의 서지 목록은 논문 말미의 <부록>에 포함되어 있다).
 - 3) 한국의 일본연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중앙대 일본연구소,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계명대 일본문화연구소, 경남대학교 일본문제연구소 등 일본관련 연구소 9곳을 방문조사 및 전화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한국일본학회, 일본문화학회, 현대일본연구회, 일본역사연구회,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문화연구회, 한양대학교 한양일본학회 등 일본학 관련 학술지와 연구자료를 생산하는 학회를 조사하여 일본연구의 경향을 파악하였다.
또한, 일본의 대표적인 한국학 관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國立國會圖書館, 國立情報學研究所 NII(National Institute of Informatics) 文部省 學術情報センター-(NACSIS), アジア經濟研究所, 日韓文化交流基金, 東京大學 東洋文化研究所附屬東洋學文獻センター, 東洋文庫, 日本國際問題研究所, 韓國文化院 등을 방문하여 일본내 한국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 실태를 조사하였다. 특히, 이 중에서 日韓文化交流基金에서는 본 연구팀이 방문했던 당시 『日本における韓日・朝鮮研究 研究者リスト』를 작업 중에 있어, 본 연구팀과 유사한 연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다 치밀하고 망라적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상대국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서 이러한 연구가 시급히 수행되어야 함에 의견을 같이 할 수 있었다.
 - 4)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팀은 관련 자료를 포괄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서지DB, 인쇄형목록, 관련 기관 방문조사, 관련 연구자 면담 등과 같은 방법들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을 통해 망라적으로 조사하였다하더라도, 분명 누락된 자료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분은 차후 보다 세심한 조사를 통해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다만 이 연구에서 분석한 내용은 본 연구팀이 현재까지 수집한 자료에 기초한 것임을 밝혀둔다.

로 하여 100년의 시기를 다음과 같이 세분하였다.

- 제1기: 국권피탈 이전 일본의 식민통치 준비기(1901~1909년)
- 제2기: 국권피탈 이후 3.1운동까지 일본의 무단탄압 시기(1910~1919년)
- 제3기: 3.1운동 이후 1920년대 말까지 일본의 이른바 문화통치 시기(1920~1929년)
- 제4기: 1930년대부터 해방까지 일본의 병참기지화 및 전시동원 시기(1930~1945년)
- 제5기: 해방 이후 국교정상화 전까지의 국교단절 시기(1945~1964년)
- 제6기: 한일수교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의 관계 재정립 시기(1965~1984년)
- 제7기: 1980년대 중반이후 2000년까지의 교류 확대 시기(1985~2000년)

2. 韓日 간 서로에 대한 연구 동향

2. 1 한국에서의 일본연구 동향

한국에서의 일본연구는 양국의 역사적 관계와 정치적 상황, 그리고 학계의 여건 등으로

그 동안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이것은 36년 동안의 식민지 경험에서 비롯된 한국인들의 일본에 대한 경계심과 거부감, 그리고 일본의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과거사 처리 태도로 인해 일본을 객관적인 '연구대상'으로 바라보게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구체적으로, 20세기의 전반은 일제에 의한 식민지 지배 상황으로 일본에 대한 우리의 연구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해방 이후에도 사회적으로 반일감정이 팽배하여 일본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가 나올 수 없는 환경이었다. 또한 해방 이후부터 한일 국교정상화 이전까지는 이승만 정권의 반일배척 분위기의 영향 아래 식민지배 경험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였다. 이렇듯 일본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 전반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를 기점으로 하여 연구가 기지개를 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초반까지도 일본 연구는 전문성의 측면에서 거의 공백이나 다름없었다.

한국학자들의 일본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는 1970년대 중반에 들어서야 비로소 시작되는데, 1972년에는 한국일본문제연구소가 그리고 1973년에는 한국일본학회가 창립되어 일본연구를 이끌게 되었다. 특히, 1978년 미국과 일본에서 학위를 받은 한글세대 연구자들이 중

5) 주제영역별 분석은 ① 정치·경제, ② 사회·행정·교육·법, ③ 문화예술, 어문학, 사상·종교·철학, ④ 역사·지리 등 4부분으로 나누어, 다음의 논문에서 세밀하게 분석하였다: 이제환, "20세기 한·일 양국의 서로에 대한 연구 현황과 특성 분석: 정치·경제분야의 단행본을 중심으로"; 최정태, "사회영역에 있어서 한일 간 지식정보의 생산과 흐름: 사회, 교육, 행정, 법률을 중심으로"; 박정길, "한일 간 지식정보의 생산과 흐름분석: 문화분야를 중심으로"; 송정숙, "20세기 한일 간 지식정보의 생산과 흐름 분석: 역사분야를 중심으로"(이상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3권 제2호(2002. 6)에 수록). 또한, 1945년 이전 '조선총독부'가 식민지 조선을 통치하는 과정 중에 생산한 자료는 다음의 논문에서 분석하였다: 최정태, "日帝時代, 朝鮮總督府의 知識情報政策과 刊行物 分析", 《韓民族文化》 제17집(2001. 9), pp.121-287.

심이 된 현대일본연구회가 창립되면서, 일본의 정치경제 상황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로 들어서면서 한국에서의 일본연구는 전문 연구자의 양적 팽창과 더불어 질적 변화가 모색되기 시작하는데, 특히, 국내외에서 일본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전문 연구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이들에 의해 일본이 전문적이고 과학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이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1980년대 중반이후부터는 연구 영역이 다양화할 뿐만 아니라, 연구의 성과 또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한국에서의 일본연구는 시대적 특성에 따라 많은 제약을 받으며 굴절되긴 했지만 꾸준히 명맥을 이어와, 최근에는 연구의 결과가 누적되고 연구가 점차 심층화되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한편, 연구의 내용적인 면에서 보면, 戰前 세대들은 과거 일본의 침략성을 폭로하고 규명하는데 집중한 반면, 식민지 경험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戰後 세대들은 일본을 독립적인 연구대상으로서 삼으면서 한국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연구를 주로 수행하는 특징을 보인다. 1960년대 중반이후 일본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연구경향

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번째는 한국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델로서 일본을 연구한 '韓日 비교연구'이며⁶⁾, 두번째 그룹은 '침략'과 '피지배'라는 특수한 역사적 관계에 근거하여 '한일관계'를 연구하는 유형으로 일본의 다양한 모습을 객관적으로 조명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들이다.⁷⁾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룹은 일본을 '독립된 대상 혹은 영역'으로 삼는 연구로서 이러한 유형의 연구는 일본을 한국과의 비교나 관계에서 연구하는 행태에서 벗어나 독립된 연구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일본 지역학 연구의 단초를 제공해 주고 있다.⁸⁾

연구팀이 2002년 4월 현재까지 파악한 '한국의 일본연구 기관'은 학회와 대학연구소가 각각 24개와 25개였는데, 이들 기관은 대부분 1980년대 이후에, 그리고 절반 이상은 1990년대 들어 설립되었다.⁹⁾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일본연구 수준의 향상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기관과 연구자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연구의 성과를 얻으려면 보다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관련 연구자들을 지속적으로 연결시켜 주고 기본적

6) 가령, 산업연구원의 『일본 건설시장의 구조분석과 우리의 진출방안』(1989), 통신개발연구원의 『일본의 뉴미디어 보급정책』(1988), 안태호·임상희의 『일본적 경영의 원리와 실천 : 국제경쟁력의 원천을 찾아서』(1986)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공통성을 전제로 일본의 과거 경험이 한국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본의 정책이나 전략을 도입하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실용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흐름은 단기적인 문제해결에는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일본 연구를 한국에 직접 도움이 될 일부 분야로 한정시킴으로써 일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방해한 측면이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7) 이러한 유형의 연구물로는, 선일구의 『일본의 진상』(1956), 윤정석의 『일본대외정책과 한국』(1988), 고병익의 『일본의 현대화와 한일 관계』(1992), 이봉하의 『가야가 세우고 백제가 지배한 일본』(1998) 등과 산업연구원의 『동아시아 경제협력 가능성과 한국의 위상』(1989), 한승조의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일관계』(1995) 등을 들 수 있다.

8) 손대준의 『일본문화론』(1984), 현대일본연구회의 『일본 정치론』(1987), 윤건차의 『일본 그 국가 민족 국민』(1997) 등이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인 자료를 묶어 총체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는 지식정보의 관리체계가 부실했다는 점과, 한일 양국의 현안을 풀어가는데 필요한 연구를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실증적으로 입증하려는 한국학자들의 노력이 여전히 부족했다는 점에서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2. 2 일본에서의 한국연구 동향

일본에서의 한국연구 수준에 대해, 일본 하 나조노 대학의 강재언 교수는 “일본은 세계적

으로 볼 때도 한국학 연구에 대한 축적이 가장 많은 나라”라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대로, 일본은 明治시대 이후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침략과 지배를 돕기 위해서 한국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왔고,¹⁰⁾ 특히, 한일합방조약 이후에는 식민지통치를 위해 조선사회의 각 분야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총체적으로 수행하면서 방대한 연구결과를 축적해 왔다. 이처럼, 20세기 전반기에 있어 일본에 의한 한국연구의 수준은 세계적으로 볼 때도 거의 독보적인 수준에 있었다.¹¹⁾

- 9) **관련학회** : 대한일어일문학회(1991), 독도학회(1996), 일본어문학회(1992), 일본역사연구회(1994), 일본연구학회(1998),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1984), 한국일본교육학회(1985), 한국일본근대학회(1999), 한국일본문화학회(1996), 한국일본사상사학회(1997), 한국일본어교육학회(1984), 한국일본어문학회(1995), 한국일본어학회(1999), 한국일본학협회(1999), 한국일본학회(1973), 한국일어교육학회(1999), 한국일어일문학회(1978), 한양일본학회(1992), 한일경상학회(1983), 한일관계사학회(1992), 한일민족문제학회(2000), 한일법학회(1979), 한일일어일문학회(1996), 현대일본학회(1978) 등 총 24개
- 대학부설연구소** : 가톨릭대 아태지역연구원(1996), 경기대 한일문제연구소(1992), 경희대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소(1986),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부속 일본연구실)(1972), 경상대 일본문화연구소(해외지역연구센터 내) (1993), 경성대 일본문제연구소(현재 인문과학연구소로 통합) (1986), 경원대 아시아문화연구소(1995), 계명대 국제학연구소(1995), 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소(부설 일본연구실)(1957), 관동대 동북아평화연구소(1994), 단국대 동양학연구소(1970), 동국대 일본학연구소(1979), 목포대 아시아문화연구소(1996), 부산대 국제지역문제연구소 (1997),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문화연구소의 後身)(1982), 서강대 동아연구소(1981), 서울대 동아문화연구소(1961), 전남과학대학 일본생활문제연구소(1991), 전남대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소(1972), 제주대 동아시아연구소(1990), 중앙대 일본연구소(1979), 중앙대 한일문화연구원(2000), 한국외국어대 일본연구소(외국학종합연구소센터 내) (1990), 한남대 일본연구소(1987), 한림대 일본학연구소(1994) 등 총 25개 ※ ()안은 창설연도
- 10) 이 연구의 대상시기에서는 제외되어 있지만, 일본에 의한 한국연구는 明治維新 이후, 특히, 明治20년(1887년)에 접어들면서부터 활발히 진행된다. 물론 明治時代를 거슬러 올라가 江戸時代부터 일본에 의한 한국연구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그러나, 강화도수호조약 이후 조선을 개항시킨 일본은 다시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을 거치면서 한국문제가 일본의 대외정책에 있어 중요하고도 현실적인 과제임을 재인식하면서 본격적인 한국연구를 시작한다. 당시 이들의 기본적인 의식에는 한국침략과 한국지배를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한국에 대한 우월감·경멸감이 지배적으로 깔려 있었다. 이러한 이들의 의식은 江戸時代의 國學의 전통을 이어받은 온 것으로, 明治초년까지는 征韓論으로 이어지다가 다시 脫亞論, 日鮮同祖論, 滿鮮史觀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특히, 청일전쟁을 전후하여 일본 조야의 관심이 한국문제에 쏠리면서, 일본학계의 눈도 일제히 한국에 쏠리게 된다. 이 시기에는 한국의 역사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언어, 지리, 법제 등 사회 제반에 걸쳐 한국연구가 확산된다. 그러나, 明治 30년 (1897년)에 이르면 일본학계에서의 한국연구는 다소 시들해지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일본의 대륙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연구자들의 관심이 한국에서 만주·몽고·서역·중국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본의 동양에 대한 관심 증대는 역으로 일본학계의 독자적인 한국연구를 시들하게 만든 계기가 되고, 이러한 경향은 한일합방조약 이후 조선통독부에 의해 한국통치를 위한 관주도의 연구가 재개될 때까지 지속된다.
- 11) 특히 韓國史 연구에 있어서는 일본학자에 의한 연구 축적이 막대하여 지금까지도 韓國史像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상태에 있다.(고세훈, “한국의 일본연구, 일본의 한국연구: 연구수준 높으려면 전문가 대접해야”, 《WIN》 39(1998. 8), pp.189-191.)

이처럼 왕성했던 일본에 의한 한국연구는 終戰 이후 한일간의 국교가 회복되기까지 약 20여년 동안은 휴한기에 접어든다. 그 주된 이유는 전후의 복구와 경제발전이 일본의 최대 관심사였기도 했지만, 한국을 지배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어 왔던 한국연구의 필요성이 더 이상 존속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기간동안 일본학자에 의한 한국연구가 완전한 공백기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일제시대 때 경성제대나 조선총독부의 조선사편수회에 소속되어 있던 연구자들이 중심이 되어 1951년에 天理大學을 거점으로 발족시킨 '朝鮮學會'¹²⁾와 조선학회의 보수적 체질에 반발하여 일본사나 동양사를 전공하는 젊은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1959년에 발족한 '朝鮮史研究會'¹³⁾는, 비록 제한된 규모이기는 하지만 한반도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었다. 그러나 연구의 관점이 제한되어 있었고, 연구의 영역 또한 주로 역사 분야에 국한되어 있었다.¹⁴⁾

일본에서의 한국연구는 1965년에 한일국교가 정상화되고 197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일본의 여러 대학에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언어 뿐만 아니라 문화와 역사에 대한 강의가 시작되면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였다. 그러

나 이 시기부터 한국에 대한 연구가 識者층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기는 하였지만, 일본학계의 한국연구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이 바뀐 것은 아니었다. 그들 중 한국을 연구하는 학자의 다수는 여전히 한국학을 일본학이나 중국학에 부수된 것으로 보는 '附庸國史觀'의 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주체적이고 독자적인 관점에서 한국학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주도한 학자들은 재일교포 출신 학자들이었다. 이들의 주류는 역사학자들이었는데, 고고학 분야의 김달수, 고대사 분야의 이진희, 근대사 분야의 박경식, 강재연, 강덕상, 박종근 등은 많은 학술서와 자료집을 출간하여 일본의 한국사 연구에 크게 기여하였다.

일본에서 한국연구가 독립된 학문영역으로 다시 등장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서였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의 군사정권을 비판적으로 보고있던 일본 언론의 영향으로 전문 학자들은 물론 일반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매우 낮았다. 그러나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의 경제성장이 비약적으로 진행되고 정치적으로도 민주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젊은 학자들과 일반인 사이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그 동안 주로 역사나 언어 그리고 민속 등에 편중되어

12) 朝鮮學會는 학회지인 《朝鮮學報》를 통해 한국의 언어·역사·민속 등에 관한 실증주의적 연구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13) 조선사연구회는 기관지인 《조선사연구회 논문집(現, 조선사연구)》을 통해서 '조선(남북한)연구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시각'을 보여왔다. 조선학회에 속한 戰前세대 연구자들이 한글조차 모르면서 한국학자들의 연구성과를 외면하거나 과소평가 하는 '본가의식'에 젖어 있었던데 비해, 조선사연구회 소속 戰後세대 학자들은 남북한에서 생산된 연구성과를 편견 없이 섭취하고자 한글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를 통해 남북한에서 출판되는 많은 저작들을 번역 출판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연구활동을 전개하였다.

14) 이 시기의 한국사 연구는 일본사나 중국사에 부수된 周邊史로 다루어졌고, 연구자들도 전문적인 한국 연구자라기보다는 일본사나 중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개인적 관심에 의해 한국사를 연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남한과는 국교가 단절된 상태였으므로 남한보다는 북한에서 출판된 자료를 번역하여 소개하는 사례가 많았다.

있던 한국연구의 영역도 정치와 경제 등 사회 과학 전 분야로 다양화되었고, 한국학을 전공하여 학위를 받거나 혹은 기존의 전공에서 한국학 쪽으로 전공을 바꾸어 대학이나 연구소의 전임연구원으로 활동하는 젊은 학자들이 늘어났다. 이러한 전문 연구인력의 확산과 함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의 한국연구는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단계로 돌입하고 있다.¹⁵⁾

한편, 연구의 내용적인 면을 고려할 때, 일본에서의 한국연구는 식민통치시대와 그 이후가 명확히 구분되는 특성을 보인다. 즉,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기 이전까지는 한국에 대한 침탈과 지배 그리고 통치를 목적으로 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終戰 이후 특히 한일국교가 재개된 이후부터는 한국을 독립된 연구의 대상으로 보면서 사회 각 분야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수행해 왔다.

이러한 일본학자들의 한국연구 경향을 대별해 보면 크게 네 개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한국에서 생산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한국의 각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얻기 위해 수행된 연구이며¹⁶⁾, 두 번째 유형은 '일본의 조선지배'라는 특수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일제통치시대를 일본의 입장에서 재조명해 보는 연구이고¹⁷⁾, 세 번째 유형은 한일관계사적 시각에서 혹은 동아시아사적 시각에서 한국을 분석하는 연구이며¹⁸⁾, 마지막 유형은 '일본기업의 한국진출을 위한 사전 분석'과 같이 일본이 한국과 관련하여 당면한 과제의 해결을 위해 주로 1970년대 이후에 생산한 실용적인 목적의 연구¹⁹⁾이다.

본 연구팀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본에서의 한국관련 연구기관은 대학부설연구소 21개, 개별연구소 18개, 관련학회 7개인 것으로 집계되었다.²⁰⁾ 이들 기관은 1930년대부터 1990년대에 걸쳐 꾸준히 설립되었는데, 이들 기관의 역사와 연구활동의 내역을 조사해 보면 일본에서의 한국연구가 대단히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을 연구

-
- 15) 1990년대 초 시행된 일본 문부성의 대학개혁정책은 일본의 한국연구에 새로운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 정책을 계기로 일본의 대학에 국제문화학부가 많이 신설되면서 한국학 강좌도 늘어나고, 한국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을 대학교원으로 채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일본에서의 한국연구는 대학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 16) 가령, 川島清治郎의 『朝鮮論』(1924), 林泰輔의 『朝鮮通史』(1944), 平木實의 『朝鮮社會文化史研究』(1987), 高峻石의 『韓國現代史入門』(1987), 瀧澤秀壽의 『韓國社會の轉換』(1988) 등과 같이 한국의 사회와 역사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수행된 연구들이 이에 포함된다. 이러한 유형의 연구는 실용적인 목적이나 양국의 역사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다는 '한국'을 하나의 연구대상으로 삼은 데서 기인한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발간된 자료를 토대로 한국의 상황을 소개한 자료들이라고 할 수 있다.
- 17) 葛生能久의 『日韓合邦秘史』(1930), 山邊健太郎의 『日韓併合小史』(1966), 萩原彦三의 『日本統治下における朝鮮の法制』(1969), 森田芳夫, 長田かな子の 『日本統治の終焉』(1979), 『朝鮮獨立思想運動の變遷』(1986) 등과 같이 '일본의 조선지배'에 대한 내용을 연구의 주내용으로 하는 것이 이에 포함된다.
- 18) 金達壽, 谷川健一의 『古代日本文化の源流』(1986), 旗田巍의 『朝鮮の近代史と日本』(1987)와 같이 한국을 일본과의 교류, 또는 일본역사의 원류로서 연구한 것들이 이에 포함된다. 이 분야의 연구들을 자세히 살펴 보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역사관과 의식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분석해 볼 수 있다.
- 19) アジア經濟研究所經濟法資料委員會의 『韓國の投資法』(1978), 宋浚의 『日本企業のための對韓技術輸出の手引き法的手續きから認可まで』(1978), 鈴木滿直의 『開放下における韓國の金融システム 資本輸出國への道』(1993) 등과 같이 국교회복 이후 일본의 한국진출을 전제로 한 연구들이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하는 일본학자들의 이러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일본은 이들 연구자를 위해 한국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는 물론이고 기존의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이 오래 전부터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보시스템의 존재는 일본의 한국연구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었다.

3. 韓日 양국이 생산한 지식정보의 현황

3. 1 한국이 생산한 지식정보의 현황

여기서는 연구팀이 수집한 3,500여종의 '한국에서 생산된 일본관련 단행본'의 현황과 특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들 자료에 대한 시대별 그리고 주제별 현황은 다음의 <표 1>에 요약되어 있다.

먼저, 제1기에서 제4기까지(즉, 1901년부터

1945년 해방 이전까지), 한국에서의 일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시기에 간행된 단행본은 단 2종에 불과하였는데, 김태진의 『일본의 발전』(1928), 유정수의 『日本風俗史概說』(1931)이 연구팀이 찾아낸 단행본 모두였다.

이러한 일본연구의 빈곤 현상은 제5기인 한일 간 국교단절 시기(1946~1964년)까지 지속되어, 이 시기 20년 동안 간행된 단행본이 74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본을 연구해온 관련학자들에 의하면, 이 시기에 일본에 대한 연구가 이처럼 미흡하였던 이유는 매우 복잡적이었다. 주된 이유는 일제에 의한 식민지 경험에 대한 반감에 더해, 국교가 단절된 상태에서 이승만 정권의 강력한 反日政策이 지속된 점, 이후 4·19세대 및 6·3세대의 민족자주정신의 고양 등으로 일본을 연구할 필요성과 분위기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이 시기에 일본은 청산의 대상이었지 결코 연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내용면에서 볼 때, 이 시기의 연구는 일본

20) 대학부속연구소 : 亞細亞大學 아시아연구소(1973), 大阪經濟法科大學 아시아연구소(1987), 沖繩國際大學 南島文化研究所(1978), 學習院大學 東洋文化研究所(1952), 關西外國語大學 國際文化研究所(1972), 九州大學 大學院 人間環境學研究科(舊 九州大學附屬比較教育文化研究施設)(1998), 京都大學 人文科學研究所(1939), 慶應義塾大學 地域研究センター(1984), 創價大學 아시아연구소(1977), 拓殖大學 海外事情研究所(1955), 東京外國語大學 아시아·아프리카言語文化研究所(1964), 東京大學 東洋文化研究所(1941), 東京大學文學部附屬文化交流研究施設朝鮮文化部門(1993), 東京都立大學 朝鮮史研究會(1959), 東北大學 東北アジア研究センター(1996), 東洋大學 아시아·아프리카文化研究所(1959), 鳥取女子短期大學 北東アジア文化總合研究所(1994), 福井縣立大學 北東アジア研究會, 法政大學 大原社會問題研究所(1919), 龍谷大學 佛教文化研究所(1961), 和光大學 總合文化研究所(1995) 등 총 21개
 개별연구소 : 日本貿易振興會 아시아經濟研究所(1960), (社)아시아調査會(1964), 아시아民族造形文化研究所(1986), 安重根研究所(1984), (社)大阪國際理解教育研究センター(舊, KMJ研究センター)(1984), 國立民族學博物館(1977), 環日本海經濟研究所(1993), 現代코리아연구소(1961), 高麗美術館研究所(1989), 國際在日韓國·朝鮮人研究會(1987), 國立國語研究所(1948), 在日朝鮮人研究會, 東洋文庫(1924), 社團法人 日本經濟協會(1960), 日韓合同授業研究所(1994), 日本國際交流センター(1973), 日本國際フォーラム(1987), 日本國際問題研究所(1959) 등 총 18개
 관련학회 : 國際아시아文化學會(1992), 社會文化史學會(1964), 朝鮮學會(1950), 東洋音樂學會(1936), 東洋陶磁學會(1973), 白東史學會(1974), 民族藝術學會(1984) 등 총 7개 * ()안은 창설연도

의 침략성을 폭로하기 위한 연구와 실용적인 목적에서 일본의 현실을 분석한 연구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前者는 주로 역사분야에서 후자는 주로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시기 출판된 단행본의 ⅔ 가량이 이들 세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前者의 대표적인 예로는, 조정환의 『전후의 일본』(1948), 김창현의 『일본의 극동침략비사』(1949), 박치수의 『일본극동침략폭로기』(1950), 이승만의 『日本之裏面』(1954), 김정주의 『日本의 韓國侵略史』(1955), 선일구의 『일본의 진상』(1956) 등을 들 수 있다. 後者の 대표적인 예로는 법제처의 『현행일본법규』(1949), 외무부의 『일본의 무공무원법 및 동관계점령성령』(1960), 노동청의 『일본실업보험성립과정』(1960), 한국생산성본부의 『일본의 기업변영상』(1961), 한국은행의 『일본의 대동남아제국과의 기업제휴의

문제점』(1962), 이필석의 『전후 일본경제부흥상』(1954), 조효원의 『아세아정치론』(1955), 강신주·최경주의 『일본관리』(1962), 김용기의 『한국이 본 일본경제』(1962), 박동규의 『일본의 중소기업』(1962) 등이 있다.

제6기인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의 기간에는 일본연구의 결과로 생산된 단행본의 규모가 총 640여종으로 이전 시기에 비해 약 9배 가까이 늘어남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의 연구물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특성은, 연구의 영역이 다양화되고 연구내용도 구체화되는 등 일본연구의 기반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가령, 정재인의 『일본문학사』(1973), 전해중·민두기의 『일본사』(1973), 한배호의 『일본 근대화 연구』(1973), 선일구의 『현대 일본의 연구』(1979), 현대일본연구회의 『일본정치론』(1981), 한배호의 『일본 정책 결

〈표 1〉 한국에서 생산된 일본관련 단행본 총괄

주제	시기								발행년 미상	계	주제별 비율
	제1기 (1901~ 1909)	제2기 (1910~ 1919)	제3기 (1920~ 1929)	제4기 (1930~ 1945)	제5기 (1946~ 1964)	제6기 (1965~ 1984)	제7기 (1985~ 2000)	계			
정치외교군사	0	0	0	0	19	85	269	1	374	10.6%	
경제산업통상	0	0	0	0	9	214	910	4	1,137	32.2%	
역사·지리	0	0	0	1	24	119	375	1	520	14.7%	
행정	0	0	0	0	4	36	229	4	273	7.7%	
사회	0	0	1	0	2	37	228	1	269	7.6%	
교육	0	0	0	0	0	15	103	0	118	3.3%	
법	0	0	0	0	5	46	190	1	242	6.9%	
문화예술	0	0	0	0	6	30	268	1	305	8.7%	
사상종교철학	0	0	0	0	2	11	52	0	65	1.8%	
어문학	0	0	0	0	3	48	168	3	222	6.3%	
기타	0	0	0	0	0	0	6	0	6	0.2%	
계	0	0	1	1	74	641	2,798	16	3,531	100%	
시기별비율	0%	0%	0%	0%	2.1%	18.2%	79.2%	0.5%			

정의 해부』(1984) 등은 이 시기의 연구가 일본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의 단계를 벗어나 대 주제 영역별로 나름대로 전문화가 진행 중에 있음을 보여준다. 주제영역에 있어서는 한일 수교의 재개와 경제개발계획을 계기로 정치 경제 분야의 연구가 두드러진 성장을 보였으며, 일본이 일반 민중의 관심 대상으로 부상하면서 사회와 문화 영역에서도 적지 않은 수의 단행본이 간행되었다.

이처럼, 시대적 필요성은 이 시기에 간행된 단행본의 성격과 밀접한 연관을 보이는데, 먼저, 경제적 관심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단행본으로는, 한일경제공동조사단의 『한일경제협력의 방향과 그 배경』(1965), 대한무역진흥공사의 『일본의 섬유산업』(1965),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연구소의 『수출진흥을 위한 일본경제연구』(1969), 황중률의 『일본경제는 붕괴할 것인가?』(1971), 국제경제연구원의 『일본의 무역구조』(1978) 등을 들 수 있다. 다음, 정치적 관심을 반영하는 단행본으로는, 원용석의 『한일회담십사년』(1965) 조영계의 『일본지역에서의 남북관계현황』(1975), 박준홍의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1978), 윤정식의 『일본의 대외정책과 한국』(1979) 등이 있다. 한편, 일본을 둘러싼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로는 김옥렬의 『미국과 미일관계론』(1973), 국토통일원의 『미일 신정권 출발후의 대한반도정책 전망』(1980), 외교안보연구원의 『최근 미·일간의 갈등과 미국의 대일태도』(1982) 등이 간행되었다. 이외에도, 1982년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파동이 일어난 직후 박성수의 『(일본교과서와) 한국사의 왜곡』(1982), 국사편찬위원회의 『일본역사교과서의 한국사 왜곡내용의

분석』(1983) 등과 같이 '교과서문제'를 둘러싼 연구물들이 출판되기도 하였다.

한편, 이 시기에도 역사분야의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특히, 일제에 의한 식민 통치를 객관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경향이 중점적으로 나타났다. 가령, 김문식의 『일제의 경제침탈사』(1970), 이현희의 『일제시대의 연구』(1974), 김대남의 『일제하 강제인력수탈사』(1975), 조용만의 『일제하 한국신문화운동사』(1977), 한상일의 『일본제국주의의 한 연구』(1980), 강동진의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1980), 임종국의 『일본침략과 친일파』(1982) 등은 이러한 연구경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단행본이다. 역사분야의 연구에 있어 또다른 특성은 한일관계를 역대 交流史를 통해 역사적으로 재조명하려는 연구들이 등장했다는 점이다. 가령, 고대 중세 근대의 시대별 韓日關係史를 다룬 연구들이 많이 간행되었는데, 이혜구의 『일본에 전하여진 백제약』(1971), 조항래의 『개항기 대일관계사연구』(1973), 김정계의 『고대 문화의 한일교류』(1973), 김의환의 『조선근대 대일관계사연구』(1974), 백종기의 『근대한일교섭사연구』(1977)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마지막 시기인 제7기(198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는 한국에서의 일본연구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본격화한 시기로 볼 수 있다. 본 연구팀이 수집한 3,500여종의 단행본 중에서 80%에 이르는 약 2,800종이 이 시기에 간행되었을 만큼 연구물의 양적 성장은 괄목할 만하며, 특히, 전통적인 연구영역이던 경제 정치 역사 이외의 분야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연구물이 생산되어 일본연구의 영역이 다양화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제영역별 생산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분야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여 전체 단행본의 약 1/3 가량인 910종을 차지하며, 그 뒤를 역사(375종)와 정치(269종)가 잇고 있다. 이에 더해, 1980년대 중반까지도 관심이 적었던 문화예술(268종), 행정(229종), 사회(228종), 그리고 법(190종) 등이 간행되었다. 이처럼,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경제개발', '한일국교정상화', '냉전구도' 등과 같이 정치경제적인 측면과 과거사를 중심으로한 역사 측면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1990년대에 들어 양국의 문화적 교류가 증대하면서 사회와 문화 전반에 걸쳐 폭넓은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²¹⁾

이 시기에는 특히 일본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단체와 전문 연구자가 급증하면서 일본 연구의 질 또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본 연구팀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본을 연구하는 학회 총 24개 중 17개(70.8%)가, 그리고 대학부설연구소 총 25개 중 16개(64%)가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대학이나 연구소에 소속된 전문 연구자의 규모도 약 230명으로 확충된 것으로 파악되었다²²⁾. 그 결과, 주제영역별 연구물의 수준도 보다 전문적이고 세분화되고 있다. 이러한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연구물의 대표적인 예로는, 정치분야에서는 김장권 외의 『21世紀 日本의 位相』(1993),

길승흠의 『세계화와 일본의 정치개혁』(1995) 등이, 경제분야에서는 김연석의 『일본 경제·무역의 분석: 한국경제를 위한 교훈의 모색』(1993)과 강두용의 『일본형 자본주의 연구』(1996) 등이, 사회분야에서는 권숙인의 『현대 일본사회와 지방의 아이덴티티』(1997)와 구견서의 『현대 일본사회론』(1999) 등이 있으며, 문화분야에서는 이상엽의 『일본인과 문화』(1993), 김종문의 『일본의 문화와 종교정책』(1997), 김찬호의 『일본 대중문화론』(2000) 등이 있다. 한편, 역사 분야에서는 정효운의 『고대 한일 정치 교섭사 연구』(1995), 손승철의 『근세조선의 한일관계연구』(1999), 유재춘의 『근세 한일성곽의 비교연구』(1999) 등이 발간되었다.

3. 2 일본이 생산한 지식정보의 현황

본 연구팀이 수집한 '일본에서 생산된 한국 관련 단행본'의 현황을 시대별 그리고 주제별로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여기서는 이들 단행본의 시기별 현황과 주제적 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제1기(일본의 조선지배 준비기)인 1901년부터 1909년까지 생산된 단행본은 모두 280여종으로 조사되었다. 이 시기에 생산된 연구물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조선에 대한 점령과 지배를 위한 '준비'를 위해 조선사회에 대

21) 특히 대중적인 차원에서 일본에 대한 이해와 호기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단행본들도 대량으로 출판되었는데, 가령, 최춘길·황성규의 『일본문화와 사회』(1986), 우주형, 『일본인의 웃음』(1987), 조양욱의 『일본 리포트(한글세대특파원의 신일본탐험)』(1991), 남영애의 『일본무용의 기초 연구』(1992), 이규형의 『일본을 알고싶다』(1994), 김도연의 『일본 TV 벗기기』(1998) 등은 이러한 경향을 명료하게 보여준다.

22)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조사에 따르면, 어문계열을 제외한 국내의 박사급 일본 연구자의 수가 경제학 57명, 법학 19명, 사회학 25명, 역사학 28명, 인류학 9명, 정치학 9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http://sias.snu.ac.kr/japan> '국내일본연구자' 참조)

〈표 2〉 일본에서 생산된 한국관련 단행본 총괄

주제	시기								발행년 미상	계	주제별 비율
	제1기 (1901~ 1909)	제2기 (1910~ 1919)	제3기 (1920~ 1929)	제4기 (1930~ 1945)	제5기 (1946~ 1964)	제6기 (1965~ 1984)	제7기 (1985~ 2000)	계			
정치외교군사	9	22	51	68	21	175	273	8	627	8.9%	
경제산업통상	75	95	196	323	3	95	253	25	1,065	15.2%	
역사·지리	78	140	191	349	80	460	861	30	2,189	31.2%	
행정	34	79	117	223	1	15	49	102	620	8.8%	
사회	40	76	172	242	10	110	379	31	1,060	15.1%	
교육	1	2	9	7	1	17	50	0	87	1.2%	
법	10	30	53	98	0	20	36	11	258	3.7%	
문화예술	10	21	31	73	10	121	219	4	489	7.0%	
사상종교철학	6	4	32	44	1	36	47	0	170	2.4%	
어문학	14	18	34	50	19	89	116	0	340	4.9%	
기타	3	8	15	39	1	17	22	1	106	1.5%	
계	280	495	901	1,516	147	1,155	2,305	212	7,011	100%	
시기별 비율	4.0%	7.1%	12.8%	21.6%	2.1%	16.5%	32.9%	3.0%			

한 개괄적이고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물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조선의 역사와 지리(78종) 그리고 경제(75종)에 관한 관심이 크게 반영되어, 이 분야의 연구물이 전체의 반을 넘고 있다. 먼저, 조선의 역사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단행본은 恒屋盛服의 『朝鮮開化史』(1901), 林泰輔의 『朝鮮史 3卷』(1901)과 『近世朝鮮史』(1905), 幣原坦의 『韓國政爭志』(1907) 등을 들 수 있으며, 조선 지리에 대한 단행본으로는 海軍水路部の 『朝鮮沿岸及其ノ附近海圖』(1901), 香月源太郎의 『韓國案内』(1902), 木村庄太郎의 『朝鮮內地之遺利』(1903), 失津昌永의 『韓國地理』(1904) 등을 들 수 있다. 다음, 조선의 경제와 산업에 대한 단행본으로는 農商務省山林局의 『淸韓兩國森林視察復命書』(1903), 長田信藏의 『韓國成業手引』(1903), 吉川祐輝의 『韓國農業經營論』(1904), 度支部의 『韓國財務經過

報告』(1908) 등이 간행되었다.

이 시기에는 또한 역사와 경제분야 이외에도, 조선지배를 위해 사회(40종) 행정(34종) 어문학(14종) 법(10종) 문화(10종) 등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연구도 왕성하게 이루어졌다. 이 중에서 한국사회 전반에 관한 연구로는 岡庸一의 『最新韓國事情』(1903), 沖田錦城의 『裏面の韓國』(1905), 統監府의 『韓國施政改革一斑』(1907), 鶴谷誠隆의 『朝鮮の宗教』(1908) 등을 들 수 있으며, '朝鮮語'에 관한 연구로는 金澤庄三郎의 『日韓語比較文法』(1902) 등을 들 수 있다.

일본이 본격적으로 조선에 대한 지배에 들어선 제2기부터 제4기까지(1910년부터 1945년까지)는 식민지통치를 위해 한국사회 각 분야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총체적으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연구물의 양이 시기별로 약 두 배씩 증가하고 있다. 먼저, 한일합방조약부터 시

작된 일본의 武斷統治時期에는 조선지배를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연구물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였는데, 조선의 역사와 경제 그리고 행정과 사회에 대한 연구가 특히 많이 생산되었다. 이러한 연구물로는 靑柳綱太郎의 『李朝五百年史』(1912)과 『朝鮮四千年史』(1917), 堀宗一の 『朝鮮の糖業』(1913), 山口豊正의 『朝鮮之研究』(1914), 原象一郎의 『朝鮮の旅』(1917)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조선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사상 등에 대한 연구물도 지속적으로 생산되는데, 대표적인 자료로는 靑柳南冥의 『朝鮮宗教史』(1911), 今井良太郎의 『朝鮮警察法規要論』(1912), 渡瀬常吉의 『朝鮮教化の急務』(1913), 山之井麟治의 『朝鮮熟語解題』(1915), 平田徳太郎의 『朝鮮の氣象』(1919) 등을 들 수 있다. 이 시기에는 특히 朝鮮總督府에 의해 조선의 사정과 현황을 조사하여 분석한 자료들이 많이 간행하였는데, 이러한 자료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朝鮮各道ニ於ケル優良面調査』(1911), 『最近朝鮮事情要覽』(1912), 『朝鮮林野分布圖』(1912), 『朝鮮に於ける施設の一斑』(1914), 『朝鮮圖書解題』(1914), 『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1918) 등이 있다.²³⁾

다음 시기인 제3기는, 조선민족의 거족적인 3.1운동으로 충격을 받은 일본이 조선지배정책을 무단탄압체제에서 문화통치체제로 전환하는 대신에 경제적인 수탈을 위한 조사 연구를 본격적으로 착수하던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

기에는 경제분야가 역사분야를 제치고 주도적인 연구분야로 등장하면서, 前 時期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연구물이 생산된다(196종). 이때 생산된 연구물은 대부분 한반도의 경제현황에 대한 '기초 조사 연구'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물은 이후 조선에 대한 경제침탈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다. 이 시기에는 또한 조선의 사회와 행정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된다. 특히, 지방제도에 대한 연구물이 다량으로 생산되었는데, 대표적인 연구물로는 大野幹平의 『朝鮮地方制度』(1921), 朝鮮總督府의 『改正地方制度實施概要』(1921)와 『現行 朝鮮地方制度輯覽』(1928), 古歴逸夫의 『朝鮮地方制度講義』(1925) 등이 있다.

제4기인 1930년부터 1945년까지는 중일전쟁(1937년)과 태평양전쟁(1941년)의 수행을 위한 식민지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일본의 조선민족말살 정책과 경제적 수탈이 극에 달하던 시기였다. 연구물도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조선인 동원정책과 경제수탈에 관련된 것이 급증하는 경향을 보인다. 가령, 중일전쟁에서의 조선인 동원정책은 越智兵一の 『滿洲事變 朝鮮軍出動記念寫眞帖』(1932), 朝鮮總督府의 『在滿朝鮮人の概況』(1932)과 『在滿朝鮮人避難對策』(1932), 그리고 『朝鮮人を滿洲に移住せしむることの必要とその戸數』(1934), 關東軍參謀部第三課의 『滿洲に於ける朝鮮人指導方策案』(1933) 등을 통해 확인

23) 일본은 식민지통치를 위해 朝鮮總督府를 설치한 후, 한국의 역사, 지리, 풍습, 언어 등 사회 전 분야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하는 한편, 한국의 전통성을 왜곡, 말살하기 위해 이를 재해석하는 연구를 거국적으로 수행하였다. 그 결과, 조선총독부는 식민통치 36년간 단행본 1,157종, 잡지 55종, 연보 265종, 총서 68종, 기타 상당수의 관보 등을 발행하였다. 이 내용은 본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된 다음의 논문에서 밝힌 바 있다. (최정태,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의 지식정보정책과 간행물 분석", 《한국민족문화》 제17집, pp.121-287)

할 수 있으며, 경제수탈을 위해 당시의 산업 상황을 조사 분석한 연구물로는 朝鮮總督府의 『朝鮮の經濟事情』과 『輕金屬鑛業と朝鮮に於けるその資源』(1933)와 『朝鮮の鑛物資源に就て』(1934), 朝鮮貿易協會의 『最近の朝鮮對滿洲貿易』(1933), 殖産局鑛山課의 『朝鮮の重石鑛業』(1933), 大河內正敏의 『時局下の朝鮮工業』(1939)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조선인의 참정권 문제와 지방제도의 개혁 문제를 둘러싸고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법적이고 행정적인 연구물도 다량 생산되었는데, 이러한 연구물로는, 大阪市社會部調査課의 『なぜ朝鮮人は渡來するか』(1930), 小笠原省三의 『最近の朝鮮及朝鮮人問題を語る』(1935), 朝鮮商工會議所의 『朝鮮人職工に關する一考察』(1936) 등과, 朝鮮總督府의 『地方制度改正案』(1930)와 『朝鮮地方制度概要』(1931), 朝鮮寫眞通信社의 『朝鮮地方制度改正令』(1931), 地方行政研究會의 『朝鮮地方制度類纂』(1941) 등이 있다.

제5기인 1946년부터 1965년까지의 국교단절기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은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결여된 상태에서 한국에 대한 연구도 거의 모든 주제분야에서 '휴한기'에 접어든다는 점이다. 단 하나 예외적인 현상은 그 절대 수량은 급격히 감소하였지만 역사관계 단행본은 꾸준히 맥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시기에 출판된 단행본의 절반 이상이 '한국사'에 관한 자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三品彰英의 『朝鮮史概說』(1952), 直井武夫의 『朝鮮戰亂の眞實』(1953), 中田薰의 『古代日韓交渉史斷片考』(1956), 坪江汕二의 『朝鮮獨立運動秘史』(1959), 內藤雋輔의 『朝鮮史

研究』(1961)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아울러 조선통치시대에 관한 학문적 조명도 이루어졌는데, 古庄逸夫著의 『朝鮮統治回想錄』(1962), 久保寺山之輔의 『日韓離合之秘史』(1964) 등의 연구물이 간행되었다. 역사분야의 연구이외에 주목할 만한 특성은, 終戰이후 일본에 남겨진 한국인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당시 연구의 관심으로 부각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 생산된 森田芳夫의 『在日朝鮮人處遇の推移と現状』(1955), 篠崎平治의 『在日朝鮮人運動』(1955)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6기인 1965년부터 1984년까지의 '관계 재정립 모색 시기'에 접어들면, 일본학계에 한국에 대한 연구붐이 다시 살아남을 느끼게 할 정도로 연구물의 생산량이 회복되었다. 이 시기에 생산된 단행본은 양에 있어 국교단절기인 제5기에 비해서 약 8배 가량 급증하였다. 이 시기에도 역시 역사관련 단행본이 전체 생산활동을 주도하고 있으나(약 1/3), 두드러진 특징은 정치외교분야의 연구물이 급증하였다는 사실이다. 이 시기에 출판된 정치외교 관련 단행본은 총 175종에 이르는데, 동시기에 출판된 모든 단행본의 15%에 가까운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이 시기는 한국과의 외교문제와 한국의 정치상황에 대한 일본의 관심이 커지던 시기였다. 이러한 경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연구물로는, 日本朝鮮研究所의 『日韓條約に關する國會議事錄 資料』(1969), 田保橋潔의 『近代日鮮關係の研究』(1972), 日朝協會文化宣傳委員會의 『最近の日朝問題: 對朝鮮政策の根本的轉換のために』(1974)와 『最近の日朝問題: ベトナム解

放後の日朝問題』(1975), 塚本勝一의 『朝鮮半島と日本の安全保障』(1978), 그리고 韓國問題キリスト者緊急會議의 『韓國民主化鬭爭資料集』(1976), 小田實, 郭東儀의 『韓國に自由と正義を: 韓國民主化支援緊急世界大會』(1981), 柴田穂의 『金大中の挫折 摸索する韓國』(1981), 中川信夫의 『日韓關係と全斗煥體制』(1981), 鳥羽 欽一郎의 『これからの韓國-全斗煥大統領と日本』(1984) 등이 있다.

이 시기의 또하나의 특징은 경제·산업·통상분야와 사회·문화·예술분야에서 단행본의 출판이 조금씩 활발해 진다는 점이다. 이는 양국 간의 경제적 교류와 사회문화적 교류가 정부차원은 물론이고 민간차원에서도 차츰 확대되어 가는 현상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當時 한국의 경제사정에 대한 관심을 나타낸 연구물로는 アジア經濟研究所의 『韓國の勞動事情』(1969), 植木三郎의 『韓國の金融事情』(1969), 裴翰慶의 『韓國の工業化と外國資本』(1970), 經濟企劃院의 『韓國への投資案内』(1970) 등이 있으며, 한국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관심들이 차츰 다양화되면서 山口正之의 『朝鮮西教史』(1967), 濱田靑陵의 『百濟觀音』(1969), 梶村秀樹·渡部學의 『韓國の思想と行動』(1971) 등과 같은 연구물들이 출판되기 시작하였다.

제7기인 1985년부터 2000년까지 최근 20년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한일간의 교류가 확대되는 時期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생산된 연구물 또한 이러한 일본의 한국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 이 시기에 생산된 단행본의 양은 전 時期에 비해 두 배정도 증가하였는데, 역사(861종)를 필두로 사회(379종), 정치외교(273종), 경제(253종), 문화예술(219

종), 어문학(116종), 그리고 교육(50종) 등 거의 전 영역에서 증가 추세가 현저함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치외교분야와 경제분야에서의 연구물의 증가는 괄목할 만하다.

먼저, 가장 활발한 연구물 생산이 이루어진 경제분야에서는 일본기업의 한국진출을 위한 실용적인 목적에서 수행된 연구들이 주류를 형성하는데, 日本貿易振興會의 『韓國の輸入制度』(1986)와 『轉換期のアジアN I E Sにおける直接投資の役割: 韓國』(1992), 統計研究會의 『日韓經濟發展比較論』(1988), 韓福相의 『韓國の經濟成長と工業化分析』(1995) 등이 대표적인 자료이다. 다음, 정치외교분야에서는 제6기에서 이루어지던 韓日 교류사를 중심으로 한일관계를 풀어가고자 하는 연구경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當時의 시의적인 문제를 다룬 연구물들 또한 상당수 생산되는 경향을 보인다. 대표적인 예로, 小谷 豪治郎의 『韓國の危機』(1987), 梶谷 善久의 『大韓航空機事事件とマスコミ』(1988), 高崎 宗司의 『妄言の原形 日本人の朝鮮觀』(1990), 伊藤成彦의 『韓國大統領選舉と南北統一』(1992) 등이 있는데, 이들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의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을 일본 국내에 소개한 자료들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教科書問題蒜譯グループ의 『韓國からみた日本の歴史教科書問題』(1983), 畑田重夫의 『日米韓"運命共同體"と教科書問題』(1984), 山田昭次の 『近現代史のなかの日本と朝鮮』(1991), 梨の木舎의 『教科書に書かれなかった戦争』(1992), 君島和彦의 『教科書お日韓協力で考える』(1993), 日韓歴史教科書研究會의 『教科書を日韓協力で考え

る』(1993) 등과 같이, 1982년부터 지속되어온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파동을 둘러싼 양국의 대립과 갈등을 소개한 단행본들 또한 이 시기에 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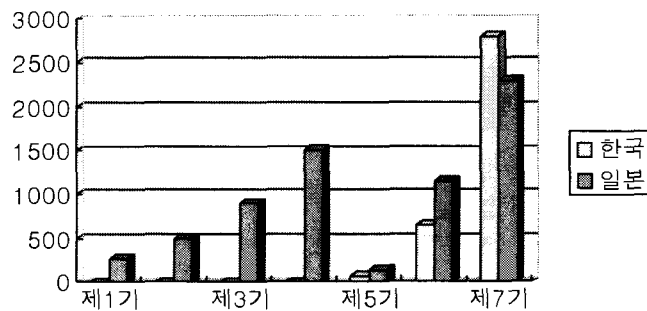
4. 韓日간 지식정보의 특성 비교

4. 1 지식정보의 시기별 비교 분석

지난 100년 동안 한국과 일본이 상대국에 대해 생산한 단행본의 특성을 분석하면서, 연구팀은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먼저, 한국은 일본에 비해 최근 약 15년간(1985~2000년)의 시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연구가 부진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1945년 終戰 이전까지는 '지배국'인 일본의 한국연구는 상당히 축적되어 있었던 반면(약 3,200여종), '피지배국'인 한국의 일본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태(2종)였다. 이것은 일본이 한일합방조약을 전후로 하여 조선지배를 목적으로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연구를 총체적으로 수행하면서 방대한 연구물을 축적한 반면, 한국은 일본의 강제점령 하에서

일본연구가 철저히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다. 그러나, 1945년 終戰 이후 상황은 크게 변화하였다. 물론 1945년부터 1965년까지 약 20년 동안의 국교단절 시기에는 한국과 일본 모두 '휴한기'라 할 정도로 상대국에 대한 연구가 빈약하였으나, 1965년 국교가 정상화되면서 일본은 한국을, 한국은 일본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다음의 <그림 1>은 이러한 시기별 특성을 한눈에 보여준다.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일본의 한국연구는 終戰 이전의 연구 규모가 終戰 이후에는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한국에 대한 일본의 관심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여 1970년대와 1980년대 그리고 199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연구의 전체 규모가 늘어나기는 하였지만, 한국에서의 일본연구에 비해 계량적인 성장세는 낮게 나타난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의 일본연구는 1970년대 중반이후부터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는 1970년대 중반이후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데, 한국이 당면해 있던 경제발전의 당위성이 경제선진국인 일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그림 1> 한일 양국이 생산한 단행본의 시기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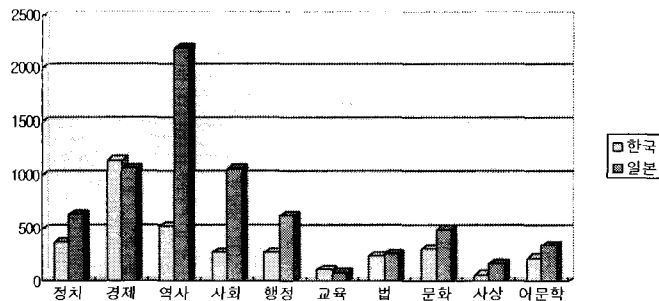
을 급속히 확산시킨 결과로 보인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현상은 1980년대 중반이후부터 한일 양국의 교류가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확산되면서 한국에서의 일본연구가 일본에서의 한국연구를 계량적인 면에서 앞서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 또한 선진산업국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일본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이해가 필요하며 따라서 일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자각이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폭넓게 확산된 결과로 보여진다.

4. 2 지식정보의 주제별 비교 분석

다음의 <그림 2>는 한일 양국이 서로에 대해 생산된 단행본의 총 수를 주제별로 분석한 것이다. 그림이 보여주듯이, 한국은 일본의 '경제'에 특히 관심이 많으며, 그밖에 정치와 역사 그리고 최근 들어 일본 문화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이 드러난다. 반면, 일본의 경우,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오던 역사분야가 여전히 한국연구를 주도하는 가운데, 1980년대 들어서야 비로소 한국 사회와 문화 분야에 대해 학문적 관심이 커지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일본의 한국연구에 있어서 나타나 는 또 하나의 특성은 국교정상화이후부터는 정치외교분야의 연구가, 1980년대 중반이후부터는 정치외교분야에 더하여 경제분야의 연구가 두드러지게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서의 일본연구와 마찬가지로,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일본의 국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에 대한 정치적 관심이 다시 고조되기 시작하였다는 점과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한국이 일본의 경쟁상대로 떠오르면서 한국에 대한 경제적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각 주제영역에 대해 보다 깊숙이 분석해 보면, 한국에서의 일본연구에 비해 일본에서의 한국연구가 역사와 전통이 깊은 만큼이나 내용과 방법의 전문성에서도 앞서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령, 역사분야를 비교해 본다면, 한국에서 생산된 일본사는 통사적 관점에서의 교과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일본사를 독립영역으로 다루기보다는 한일관계사의 관점에 한정되어 있으나, 일본의 경우 한국의 시대사는 물론이고 시대사 내에서 정치사, 경제사 등 주



<그림 2> 한일 양국이 생산한 단행본의 주제별 비교

제별 역사를 다량으로 다룬 연구물을 생산해 낼 만큼 높은 수준에 올라있다. 이러한 연구수준에서의 차이에 더해, 양국의 주제별 분석에서는 한국의 일본연구자들이 연구주제를 광범위하게 잡는 반면, 일본의 한국연구자들은 동일한 주제라 하더라도 아주 미세한 부분에서부터 연구를 진행한다는 차이를 밝혀낼 수 있었다. 그 주된 이유는 일본은 한국에 대한 연구성과가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왔으나, 한국의 일본연구는 연구성과가 축적되지 못하여 후학들이 매번 같은 경로를 되풀이하는 상황을 반복함으로써 야기된 것으로 보인다.²⁴⁾

5. 결론: 지식정보관리의 필요성

이 연구는 1901년부터 2000년까지의 100년 동안 韓日 양국이 서로에 대해 연구하여 생산한 '단행본'을 중심으로 하여, 韓日 양국의 서로에 대한 연구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한국의 일본에 대한 그리고 일본의 한국에 대한 연구물을 추적하여 수집하는 방대한 작업이 선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팀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관련 자료를 망라적으로 수집하고자 하였지만, 관련 자료의 수집과 관련한 방법상의 한계로 인해 망라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작업임을 절감하였다.²⁵⁾ 연구팀은 이러한 한계가 연구팀이 자료 수집을 위해 활

용한 서지 도구들, 즉, 각종 도서관의 소장목록, 색인집, 초록집, 도서해제, 그리고 각종 서지 DB의 불완전성과 부정확성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감지하였다. 이처럼, 이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관련 자료의 분석 못지 않게 관련 자료의 수집을 위해 막대한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었다.

이렇게 수집한 자료에 기초하여, 본 연구팀은 한일 양국에서 상대국에 대한 연구가 어떠한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어떠한 기본적인 시각과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 나아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얼마나 전문적으로 이루어져 왔는지에 대해 개괄적이거나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주제 전문가들에 의해 쓰여진 서로에 대한 연구 동향 혹은 경향을 분석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으나, 이 작업 역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였다. 한국에서는 물론 일본에서도 이러한 유형의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다.²⁶⁾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를 일본을 연구하는 한국학자들이나 한국을 연구하는 일본학자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있었다. 이들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한일 양국이 일천년이 넘는 교류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학술적으로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음을 절감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본 연구팀은 한일 양국이 상대국에 대한 연구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연구결

24) 세부 주제별 분석은 앞에서 기술한 최정태, 이제환, 송정숙, 박정길 등의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25) 따라서, 본 연구팀이 현재까지 수집한 단행본의 리스트는 여러 차례에 걸쳐 수정과 보완작업을 하였으나, 2002년 4월 현재 데이터의 포괄성에서는 여전히 보완을 필요로 함을 밝혀둔다.

과를 집적하여 연구자들이 필요할 때마다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하다는 생각을 갖게되었다. 이런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었을 때, 양국의 연구자들은 필요한 자료의 수집에 들이는 노력을 절감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새로운 테마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가능해질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연구팀은,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제1과제로 방만하게 흩어져 있는 관련 자료를 망라적으로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韓日 지식정보검색시스템』을 제작하였다. 이 정보시스템은 본 연구팀이 韓日 양국이 지난 100년간 서로에 대해 생산한 연구물의 시대별 현황과 주제적 특성을 분석해 내는데 직접적으로 활용되었다.

연구팀이 이러한 분석과정에서 밝혀낸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2002년 현시점에서 볼 때, 한국의 일본연구가 일본의 한국연구에 비해 '계량적인 면'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본 연구팀의 조사 결과는 우리가 그동안 대중매체와 일본을 연구하는 한국

학자들을 통해 접해온 '한일 양국의 서로에 대한 연구 현황'과는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우리는 지금까지 일본에서의 한국연구에 비해 한국에서의 일본연구는 그 규모나 수준에 있어 비교가 안될 정도로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인식해 왔다.²⁷⁾ 그러나 연구팀의 조사에 의하면,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생산된 단행본의 계량적인 통계에 있어서 한국이 일본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0년대 중반부터는 연구의 질적 수준 또한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론에도 달하기 위해서 연구팀은 1만종이 넘는 단행본을 수집하고 정리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렇듯 방대한 작업에 기초하여 밝혀낸 사실이기에, 본 연구팀은 2002년 현시점에서 한국의 일본연구는 일본의 한국연구에 비해 규모 면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개진한다.

문제는 현실이 그러함에도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이 연구의 결과는 우리에게 최소한 한 가지 과제를 던져준다. 그것은 한국의 일본연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

26) 본 연구팀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90년대 들어 상대국에 대한 연구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관련 분야의 연구활동을 위해 상당히 고무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졌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에서는 '한국일본학회'를 중심으로 해방이후부터 진행된 일본에 관한 연구를 종합하여 『한국의 일본연구 어디까지 왔는가』를 각 주제별로 분석한 바 있으며(한국일본학회, 《日本學報》제30집 참조), 아울러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일본자료센터'에서는 1997년부터 『국내일본연구자』, 『국내일본관련논저』, 『국내일본관련학과』, 『한국의 일본연구 동향』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그 내용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에서는 '日韓文化交流基金'에서 『日本における韓國・朝鮮研究 研究者リスト』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사하여, 일본 내에 있는 한국관련 연구자 명단 총570여명과 그들의 연구업적을 망라적으로 집대성하는 작업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외에도 '東洋文庫', '亞細亞經濟研究所', '國立國會圖書館' 등과 같이 개별 단위기관 차원에서 한국(조선)관련 연구자들이 필요로 하는 원자료 및 관련 연구동향을 망라적으로 수집하여 제공함으로써, 연구자들이 자료수집에 들이는 노력을 절감하여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고한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 일본을 연구하는 한국학자들은 연구의 질적인 수준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여전히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연구의 질적인 면에 있어서의 비교평가는 여기서는 유보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서지학적 관점에서 '계량적인 평가'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질적인 평가는 관련 학문분야의 전문가들의 몫이며, 그들에게 남겨둔다.

기 위해서는 한국이 생산해온 일본연구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관리하고 유통시키기 위한 制度적 장치, 즉,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사실이다. 본 연구팀이 이 연구의 과정에서 『韓日 지식정보검색시스템』을 개발하고 관련 자료를 모아 서지 DB로 구축한 것도 이러한 필요성을 절감하였기 때문이었다. 물론 연구팀이 개발한 정보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는 아직까지는 '단행본'에 국한되어 있어 포괄적 유용성에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러

나 앞으로 후속연구를 통해 보다 다양한 유형의 자료들을 발굴하여 보완할 때, 이 정보시스템은 일본을 연구하는 한국학자들의 연구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 대중들이 일본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도구의 역할을 할 것이다. 나아가, 정책입안자들이 향후 韓日간 '협력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기본 정책을 마련할 때도 요긴한 참조도구로 쓰일 것으로 기대된다.

〈부록〉 자료 수집을 위해 참조한 서지 자료

- 독립기념관 『장서목록』.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7.
- 고대민족문화연구소 『한국논저해제: I-VI』. 1972-1977.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일본연구실 편 『韓日關係資料集 제1, 2집』.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6.
- 국립중앙도서관 『고서목록1-6』. 1970, 1971, 1972, 1973, 1980, 1994.
-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 1965-1998.
- 국립중앙도서관 『학술논저총합색인』. 1945-1996.
-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서목』. 1963, 1964.
-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목록정보』(CD-ROM). 1998.
- 국사편찬위원회 『해외한국사 연구문헌 목록』.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86.
- 국사편찬위원회 『고문서목록』. 1993, 1994.
- 국사편찬위원회 『고서목록』. 1983.
- 국사편찬위원회 『고종시대사』. 1967~1972. (6책)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논저목록』. 1984.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자료』. 1970~1998. (35책)
-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986~1998년. (31책)
- 국토통일원 『한반도문제에 관한 문헌목록: 1945-1982』. 서울: 국토통일원, 1982.
- 국회도서관 『장서목록』. 국회도서관, 1966-1980.
- 국회도서관 『한국언론관계문헌목록: 구한말-1945.8.15』. 국회도서관, 1970
- 국회도서관 『한국 박사 및 석사학위논문 총목록』. 1945-1998.
- 김동수 편 『한국사논저 분류총목』. 서울: 혜안, 1996.
- 김옥희 『한국교회사 논저해제집』. 서울: 순교의 맥, 1991
- 김용구 『한일외교미간극비사료총서: 해제·목록』.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5.
- 민족통일연구원 『장서목록』. 민족통일연구원, 1995
-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고고학과 『近藤義郎教授寄贈 日本考古學關係圖書目錄』. 부산: 부산대학교 도서관, 1995.
- 부산시립시민도서관 『조선관련해방전장서목록』. 1998.
- 부산시립시민도서관 『부산시립도서관소장귀중본 도서해제』.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서울학문헌목록집: 1910-1945』. 1994.
- 소재영 『한국고전문학관계 연구논저 총목록(1900-1992)』. 서울: 계명문화사, 1993
- 역사학연구회 『현대한국역사학논저목록: 1945-1980』. 서울: 일조각, 1983.

- 오인택. 『한국기독교교육학 문헌목록: 1945-1980』.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83.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청소년관계 문헌목록집: 1945-1984』. 1985.
- 이기석·윤정숙. 『한국지리논문목록』. 서울: 寶晉齋, 1982.
- 이상규·나삼진. 『한국교회사 관계문헌목록: 1918-1981』. 부산: 고신대학교교회사연구회, 1982.
- 이헌재. 『한국고고학문헌목록』. 서울: 학연문화사, 1995.
-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한국민속관계자료목록』. 서울: 이화여대 한국 문화연구원, 1983
- 今西龍 蒐集. 『日本所在 韓國 古文獻 目錄 第1-4卷』. 서울: 驪江出版社, 1990.
- 장득진 편. 『한국사논저총목록: I, II, III』. 서울: 민족문화사, 1985.
- 조선총독부. 『조선도서해제』. 京城: 조선총독부, 1919(大正8).
- 조선총독부경무국. 『조선총독부 금지단행본 목록』. 조선총독부경무국, 1941(昭和16).
- 중앙교육연수원. 『장서목록』. 1994.
-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한국교육목록』. 서울: 중앙대학교 교육학부 출판부, 1960.
- 중앙승가대학. 『한국불교관계논문목록』. 서울: 중앙승가대학, 1982.
-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 편. 『韓國史料解題總錄』. 서울: 총무처정부기록보존소, 1988.
-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 『해외소재 한국관계 기록물 목록』. 1985.
- 총무처. 『정부기록보존문서색인목록』. 서울: 총무처, 1977.
- 통일원. 『장서목록』. 통일원, 1992.
- 한국경영교육위원회. 『경영학문헌색인(1945-1984)』. 서울: 한국경영교육위원회, 1984.
- 한국관광학회. 『관광관련자료목록집: 1967-1993』. 1994.
- 한국무속박물관. 『무속연구 문헌목록집』. 대구: 한국무속박물관 출판부, 1995.
-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사학논문저목록(1945-1990)』. 1992.
- 한국보험학회. 『보험문헌총목록집(1964-1993)』. 서울: 한국보험학회, 1994.
-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일제식민정책자료목록』. 1979.
- 한국신학도서관. 『한국 신학관계 석·박사학위논문목록집(1-5)』. 1945-1985.
- 한국언론연구원. 『문헌목록집: 언론·일반단행본』. 1994.
- 한국인문과학원 편집부. 『〈國外〉韓國史關係論文選集』. 서울: 한국인문과학원, 1987.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목록』. 1984.
- 한국학 문헌연구소 편. 『조선총독부고도서목록』.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5.
- 한국학 문헌연구소. 『조선총독부고도서목록』.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5.
- 한국학술진흥재단. 『외국박사학위 논문초록집』. 1994-1997.
-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사 문헌목록집』.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1995.
-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환경자료목록집』. 서울: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1995.
- 한일관계사연구회 편. 『한일관계사 논저목록』. 서울: 현음사, 1993.

- 황규남. 『한국천주교 교리 교육학 문헌목록(1784-1995)』. 서울: 가톨릭출판사, 1996.
- アジア經濟研究所圖書資料部 編. 『舊植民地關係機關刊行物總合目錄 — 朝鮮編』. アジア經濟出版會, 1974. 3.
- アジア經濟研究所 編. 『發展途上地域日本語文獻目錄』(1983~1992). アジア經濟出版會.
- 國立國會圖書館. 『國立國會圖書館所藏 朝鮮關係資料目錄 1: 日本文編』. 同圖書館, 1966. 3.
- 國立國會圖書館. 『國立國會圖書館所藏 朝鮮關係資料目錄 2: 歐文編』. 同圖書館, 1967. 3.
- 國立國會圖書館. 『國立國會圖書館所藏 朝鮮關係資料目錄 3: 朝鮮文編』. 同圖書館, 1970. 3.
- 國立國會圖書館. 『國立國會圖書館所藏 朝鮮關係資料目錄 4: 朝鮮本編』. 同圖書館, 1975. 3.
- 國立國會圖書館. 『國立國會圖書館所藏 朝鮮關係資料目錄 補遺判 1~4』. 同圖書館, 1986. 3.
- 國立國會圖書館 參考書誌部. 『日本舊外地關係統計資料目錄』. 同圖書館, 1964. 10.
- 國立國會圖書館 參考書誌部 編. 『國立國會圖書館所藏地圖目錄 — 台 · 朝鮮半島の部(昭和 40年 3月)』. 同圖書館, 1966. 3.
- 國立國會圖書館 編. 『寺內正毅關係文書目錄(府) 岡市之助關係文書目錄』. 同圖書館, 1971. 6.
- 日韓歷史研究促進に關する共同委員會. 『朝鮮半島に關する歷史·國際關係の日本語文獻目錄』(1998年版 / 1999年版). 日韓歷史研究促進に關する共同委員會.
- 近藤 一 編. 『友邦協會·中央日朝協會保管朝鮮關係文獻·資料總目錄』. 友邦協會 1961. 8.
- 大村益夫, 任展慧 編. 『朝鮮文學關係日本語文獻目錄』. プリントピア, 1984. 3.
- 島利雄, 金貞淑. 『朝鮮語學に關する文獻目錄』. 筑波大學現代語現代文化學系, 1979. 3.
- 東京經濟大學圖書館 編. 『東京經濟大學圖書館所藏 櫻井義之文庫目錄 — 朝鮮關係文獻』. 同圖書館, 1976. 7.
- 東洋文庫「日本近代化」研究組織. 『東洋文庫別置東アジア關係歐文圖書目錄(1968年 3月 31日現在) II: Korea』. 同組織, 1969. 3.
- 東洋文庫 編. 『增補 東洋文庫朝鮮本分類目錄』. 國立國會圖書館, 1979. 3.
- 東洋學文獻センター連絡協議會 編. 『日本文·中國·朝鮮文等逐次刊行物目錄』. 東洋文庫, 1964. 3.
- 末松保和 編. 『朝鮮研究文獻目錄: 1868-1945』. 東京大學 東洋文化研究所附屬 東洋學文獻センター, 1970.
- 末松保和 編. 『朝鮮研究文獻目錄 1968~1945 論文·記事篇 I, II, III <東洋學文獻センター叢刊>』. 東京大 東洋文化研究所附屬東洋學文獻センター, 1972. 2.
- 末松保和 編. 『朝鮮研究文獻目錄 1968~1945 <復刻: 東洋學文獻センター叢刊影印> 單行書編, 論文·記事篇』. 汲古書院, 1980. 1.
- 末松保和 編. 『朝鮮研究文獻目錄單行書編 上, 中, 下, 索引<東洋學文獻センター叢刊>』. 東京大 東洋文化研究所附屬 東洋學文獻センター, 1970. 3.
- 名古屋朝鮮史研究會 編. 『四方朝鮮文庫目錄』. 同研究所(名古屋). 1978. 10.

- 北海道大學附屬圖書館 編. 『北海道大學所藏 舊外地關係資料目錄 — 朝鮮・臺灣・滿洲(東北) (明治~昭和20年)』. 同圖書館.
- 石井正敏, 川越泰博. 『日中・日朝關係研究文獻目錄』. 國書刊行會, 1976. 6.
- 櫻井義之. 『朝鮮研究文獻誌 — 明治大正 篇』. 龍溪書舍, 1979. 10.
- 友邦協會 編. 『友邦協會所藏朝鮮關係文獻・資料總目錄 2 (1961. 9~1972. 10 受入登錄分)』. 同協會, 1972.
- 原三七 編. 『(今西博士蒐集) 朝鮮關係文獻目錄』. 書籍文物流通會, 1961. 2.
- 日朝協會大阪府連合日朝貿易文化センター. 『日本で出版された朝鮮に関する圖書目錄(1945年 8月 15日~1960年 8月15日)』. 日朝協會, 1960. 12.
- 朝鮮史研究會 編. 『戰後日本における朝鮮史文獻目錄: 1945-1991』(綠蔭書房)
- 眞井達也 調査. 『朝鮮關係圖書目錄 — 一橋大學圖書館 (昭和46年現在)』. 友邦協會, 1971.
- 筑波大學 編. 『韓國學に関する文獻目錄 — 筑波大學圖書館所藏分』. 同大學, 1981. 3.
- 學習院東洋文化研究所 編. 『學習院東洋文化研究所 朝鮮史關係所藏圖書目錄』. 同研究所, 1975. 3.

(서지DB)

교보문고 등 각종 서점 DB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

국사편찬위원회 소장목록 (Maestro DB)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일본자료센터 <http://sias.snu.ac.kr/japan>

한국교육학술정보원 <http://www.riss4u.net>

한국사회과학도서관 <http://www.kssl.or.kr/>

홍익대 '한국사 서지(1876-1998)' DB

國立國會圖書館 (National Diet Library) <http://www.ndl.go.jp>

國立情報學研究所 文部省學術情報センター <http://www.nii.ac.jp>

東京大學 總合圖書館 <http://www.lib.u-tokyo.ac.jp/>

東京大學 東洋文化研究所附屬 東洋學文獻センター <http://www.ioc.u-tokyo.ac.jp>

朝鮮史研究會 [戰後日本における朝鮮史文獻目錄データベース]

<http://www.zinbun.kyoto-u.ac.jp/~mizna/database/sengo>

日本貿易振興會 アジア經濟研究所 <http://www.ide.go.jp>

東洋文庫 <http://www.toyo-bunko.or.jp/index.html>